



불서읽기 캠페인

쉬운 해설로 선문에 도달할 수 있어



육조단경
혜능 대사 지음 | 광덕역주
불광출판사 펴냄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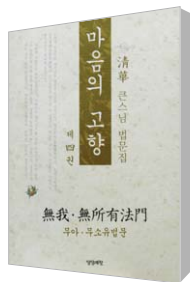
‘자성(自性) 즉(卽) 진불(眞佛)이라.’ 법해 스님에 의해 집성된 중국 선종의 제 6조 혜능 대사의 어록 <육조단경(六祖壇經)>이 난해했다면 광덕 스님의 해설로 역주가 더해진 송천사(松川寺)판 <육조단경>을 권한다. 진리를 구하고 근원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어둠에서 이르는 차체를 따라 선문에 도달하도록 한다.

육조 스님의 최초 설법은 무슨 내용일까? 오도(悟道) 득법(得法)의 경위가 밝혀진다. 의법을 받고 시기하는 무리를 피해 16년 동안 사냥꾼들과 섞여 지내다 법사에서 인종 법사의 눈을 열어준 것을 계기로 삭발 수계하고 조계로 나와 설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하고 있다.

광덕 스님 역주의 <육조단경>은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해 받아 유통을 부촉하는 과정을 총 10장으로 나눴다. 풍산 선사(序)와 법해 선사의 약서(略序)를 머리에 두고 끝으로 부록과 여러 선사의 발문을 실었다.

가연숙 기자

행복 찾는 이에 대한 해답



마음의 고향4-무아·무소유법문
청화 스님 지음
상상예찬 펴냄 | 1만1000원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제10조)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조금 더 나아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 정작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무슨 이유일까?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마음의 고향 제4권 - 무아·무소유법문>이 출간됐다. <마음의 고향> 시리즈는 미국 삼보사에서 진행된 ‘순선안심탁마법회’에서 청화 스님(前 조계종 성문사 조실·2003년 입적)이 펼쳤던 법문을 담은 법문집이다. 이번에 발간된 4권은 ‘본래 고유한 내가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보살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화 스님은 법문집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욕망과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비어 있으나 공허하지 않고, 잡히지 않으나 늘 품고 있는 마음의 근본, 참다운 생명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성장할 수 있다’는 스님의 법문을 따라 자신을 비우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자신과 만난다.

김진성 기자



사찰을 이해하면 한국역사가 보인다

한국불교를 아는 것은 한국사를 아는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사찰 배치와 유희 세계를 연계 조명한 김라잡이 서적 <한지유의 사찰 문화재 기행>이 출판됐다. 현장에서 사찰 문화재를 안내해 온 저자가 신앙 비교사를 통해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 신앙의 의미를 살핀다. 역사 속에서 중생의 삶·현실 생활 가운데서 진리를 위한 삶·향후 불교인의 역할과 전망까지 고민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를 농축했다.

저자는 “일상에서 무시되고 지나친 사찰의 석등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불교의 시각과 교리에 의해 철저하게 배치된 존재임을 알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새겨 볼 것이라고 전한다. 종교는 원래 자연 앞에서 우한의 존재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견해다. 화려한 예술성과 뛰어난 과학성이 결합된 불교를 문화로 보유한 한국의 전통성을 새롭게 확

인하는 동안 한국불교를 향한 자부심이 배양된다.

#천상에서 전해준 비밀

전통 사찰에서 조형물과 마주할 때 뭔가 아쉬움이 든 경험이 있다. 제작 목적이 불분명하고 문화재적 가치나 미술 작품으로만 강조된 까닭이다. 불교 조형물 안에 깃든 사상적 기반을 알고 다가간다면 관람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저자는 사찰 안내판으로 해소되지 못했던 사찰의 비밀을 불교적인 맥락에서 접근한다. 수미산의 상징인 사찰에서 처음 만나는 당간으로부터 시작해 불국토의 표상인 불전과 수인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명칭들의 유래를 살핀다.

#부처와 장인의 숨결

불교의 세계관을 파악하면 사찰의 각 구조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조성된 사리탑과 조사를 모신 부도를

설명했다. 시대의 장인에 의해 장엄된 사찰 곳곳의 조형물에 대한 기본 용어들은 당신을 문화 지식인으로 만들어 준다.

한국 역사 속에서 불교 신앙의 의미를 조망해 온 저자는 사찰 조형물이 조성된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문화와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본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파라미다 문화재 모니터링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생활문화연구소 대표로 재직 중인 저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의식이 완성한 한국의 사찰 문화재 기행집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인문적 교양을 두루 얻을 수 있는 교양서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
이덕일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 | 전2권 각 1만1000원

조선 속종 시대는 불교의 황금기였을까?

사찰을 즐겨 찾는 사람이나 유적답사를 위해 사찰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찰 안내문을 통해 ‘조선 속종 때 중창’이라는 문구를 읽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등사·통도사·범어사 등 수많은 절들이 속종 때 중창을 시켰기 때문이다. 성리학만이 정대이고 다른 사상은 사도로 취급받던 시대에 많은 사찰이 중창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는 사학자 이덕일(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소장이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사소설이다. 필자는 당시의 중창 불사가 ‘막바지까지 간 성리학 사회에 반기를 든 불교 세력과 민중들에 대한 회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의 상황을 문화적 이야기 전개와 역사적 평설로 조화하고 있다.

<속종실록>은 ‘속종 23년(1697년) 운부라는 승려와 풍수사 이영창이 조선을 멸망시킨 후 정몽주의 후손을 임금으로 삼는 새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 청나라를 공격해 최영 장군의 후손을 임금으로 세우려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이영창 문초 기록> 등 당시의 역사서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 사료와 사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소설로 완성했다.

조선 속종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인문적 교양을 두루 얻을 수 있는 이덕일 소장의 야심작이다.

김진성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이 이 세상에 없을 당산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들	원철
4	아벨로카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며	김일수	도파란사
6	하늘이 감춘 명	조연현	한겨레출판사
7	인과경	현담	선
8	산심	해인	클리어마인드
9	절을 가차게 잘하는 법	창건	뫼디의 마을
10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불서출판 문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연료비 90% 절약

전자파 없고

전선이 아닌 온수순환 방식으로 전자파가 없습니다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모터없고 소음없는 무동력 온수매트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성장하는 어린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금사원단
- ☑ 활성탄
- ☑ 3단접이 보관
- ☑ 완전 방수기능

2009년형 신제품

특이점: 무동력 히팅순환기
2009년 무동력(자세운행)의 특이점인
과로 다중 방수하고 고압물이 없습니다.

■ 규격 : 2인용 : 1400 × 2000 × 40 (±5)
1인용 : 950 × 2000 × 40 (±5)

후불제 판매단행!

웰빙 온돌방의 특징점

웰빙 온돌방 온수보일러는 모터작동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이 아닌 후동력(자연순환방식)이라 고장률이 거의 없으며, 모터회전에 의한 소음이 없습니다.

- 무동력 디지털 보일러 기존의 강제순환방식(동력)에서 벗어나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모터없이 물을 자연순환시켜 소음이 없고 가열시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발열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따뜻한 웰빙 온돌방입니다.

▶10-2008-0002113 ▶10-2008-0009761
▶10-2008-0019875 ▶10-2008-0064719
국제특허 : PCT/KR2008/003038
*무단복제 사용자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 ▶ 전자파는 미나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로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여 뇌파원전도 검사 결과 수면장애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 ▶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어 면역력이 문제가 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 ▶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6년 5월 전기장판은 임신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 이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침대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침대·온돌겸용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가 따뜻하여 아주 좋습니다. 대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취급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큼니다.

현금가 : 1인용 218,000원 2인용 248,000원
지로분할가 : 1인용 : 52,000×5회 / 2인용 : 59,000×5회

대전하우징 전문 전화 **080-338-3388**

입금계좌 (농협) : 1285-02-011378 이현실